

코오롱티슈진, 새로운 이사회 구성해 독립성 강화

▷ 올해 7월 임상3상 톱라인 발표 전 정기 이사회 및 전략점검회의 개최

▷ (주)코오롱 이규호 부회장 등 신규 이사진 3인 선임해
책임경영과 전문성 기반의 이사회 독립성 강화

▷ 전승호 대표이사,
신규이사진과 함께 TG-C의 성공적 시장진입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본사에서 올해 새롭게 선임된 이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번 정기 이사회는 지난 13일과 14일(현지시간) 양일간 미국 메릴랜드 주 록빌 소재 코오롱티슈진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이사회는 향후 TG-C의 글로벌 상업화를 앞두고 심도 있는 전략 수립을 위한 전략점검회의도 함께 개최됐다.

전승호 대표이사는 정기이사회와 전략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임상 3상 데이터 발표 일정과 중장기적 상업화 전략을 이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했다. 전승호 대표이사는 “3월 주주총회 결의 이후 이번 이사회에서 신규 선임된 이사진들과 앞으로 글로벌 상업화의 실행 방향성을 치밀하게 조율해 나갈 것”이라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구조가 확립된 만큼 TG-C의 FDA 품목허가(BLA)를 시작으로 코오롱티슈진이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에는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이규호 사내이사와 노문종·전승호 대표, 김정인 CFO를 비롯해 최근 신규 선임된 글로벌 전문가 안 반 아커(Jan Van Acker)와 로버트 양(Robert Yuen Lee Ang) 사외이사가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향후 가시화될 TG-C의 임상 3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장 포지셔닝 계획 및 현지 네트워킹 고도화 전략과 상업화를 위한 실행 로드맵이 다루어졌다.

신규 이사회 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책임경영’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주)코오롱 이규호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되었으며, 바이오 분야 전문가 2명이 사외이사로 합류했다. 이들은 경영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사회가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호 사내이사는 지난해부터 APEC의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에서 신설된 바이오헬스케어워킹그룹(BHWG) 의장을 맡아 관련 논의를 이끌어왔다. 올해 3월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보건 의료분야의 주요 의제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고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내 바이오 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전문가도 사외이사로 선임되며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 새로 합류한 안 반 아커(Jan Van Acker)는 MSD에서 Chief Marketing Officer 및 Senior VP로서 키트루다(Keytruda)를 비롯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의 상업화를 진두지휘한 커머셜 전문가이며, 로버트 양(Robert Yuen Lee Ang)은 외과의사 출신의 Vor Bio 前 CEO로, 전략컨설팅, 경영 및 BD업무 등을 두루 거친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문가이다. 이들은 현지 상업화와 허가 절차

에 전문성을 갖춰 TG-C의 글로벌 시장 안착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오는 7월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TG-C의 미국 임상 3상 탑라인(Top-Line)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현재 FDA 품목허가 신청준비를 진행 중이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상업화 전략을 구체화 하고 있다. 한편, 2024년 10월 위탁생산 계약 체결을 통해 글로벌 위탁 생산 기업인 LONZA가 TG-C의 상업 생산을 맡기로 했다.

(사진1) 코오롱티슈진 이사진 (왼쪽부터) 김영준 감사, 안 반 아커 사외이사, 전승호 코오롱티슈진 대표, 노문중 코오롱티슈진 대표, 김정인 사내이사, 이규호 사내이사, 로버트 양 사외이사



(사진2) 코오롱티슈진 이사회 참석해 발언 중인 전승호 대표이사

